

사회

기아차 운반트럭 고속도로서 화염병 피습

21일 밤 장성서... 화물연대 비노조원에 보복 가능성 수사

최근 화물연대가 운송료 인상 문제로 파업중인 가운데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출고된 신차를 싣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탁송용 트레일러를 상대로 한 화염병 투척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화염병 투척이 사전에 계획된 점으로 미뤄 원한이나 화물연대 비노조원에 대한 보복 범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지난 21일 밤 10시25분께 장성군 장성읍 장성리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장성 JC지점에서 나모(42)씨가 운전하던 차량 탁송용 트레일러에 화염병

3개가 날아들었다.

광주공장에서 갓 출고된 스포티지 R, 소울 등 신차 8대가 실려있었던 이 트레일러는 이날 경기도 안산 출하지로 향하던 길이었다.

화염병은 폭발음과 함께 터져 불길 이 치솟았으나 곧바로 꺼졌으며, 화염병에 있던 페인트에 소울 등 차량 4대가 피해를 입었다.

나씨는 경찰에서 "장성 JC에서 서해안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고창성산을 성산리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장성 JC지점에서 나모(42)씨가 운전하던 차량 탁송용 트레일러에 화염병

한 남성 3명이 주범 야산으로 도망가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나씨가 투척한 장소라고 지목한 지상 15m 높이의 교량 도로가 차량을 주차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뤄 범인들이 사전에 범행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기아차 운송 차량이 보이자 화염병을 던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기아자동차에 불만을 품고 저질렀을 가능성 ▲화물연대 비노조원인 운전자에게 대한 보복 범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주변 폐쇄회로 TV 등의 영상을 확보해 화염병을 던진 용의자들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3명이 위험한 고속도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원한일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 12일부터 운송다가 인상 등을 주장하며 부산에서 파업집회를 열고 있으며, 21일 광주 지역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운송 사업자와 운송료 협상을 가졌으나 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김홍희기자 yongho@



트레일러 10일째 불법주차

22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 기아차 광주공장 앞 기아로 갖길에 화물연대 노조원들의 트레일러 차량이 10여일째 불법주차돼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노조원들이 부산 등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하면서 불법주차했지만 서구는 계도조치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불법 추정차 견인업체에 남구청, 계약 해지 통보

광주시 남구가 불법 주·정차 견인료 수익을 횡령한 대행업체(본보 2월 29일자 6면)에 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남구에 따르면 표본감사 결과 견인료 미부과자로 신고한 1713명 중 396명에게 견인료 1188만원을 받아 횡령한 것으로 밝혀져 계약을 해지하고 직영할 방침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시아머니 밥에 극약 넣은 베트남 며느리 집유 선고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지난 21일 시어머니가 먹을 밥에 극약을 넣은 혐의(존속살해 미수)로 기소된 베트남 이주여성 D(24)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D씨에 대해 양로원 봉사 320시간과 40시간의 심리치료 및 사회교육 수강,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D씨가 시어머니 살해를

시도한 것은 국가를 떠나 중대한 사건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의 발단이 의사소통 등의 갈등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회 격리보다는 아이와 남편 등 가족과 관계를 유지하며 반성하는 게 낫다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한국인 남편(36)과 결혼해 지난 2009년 7월 입국한 D씨는 고부간 갈등을 겪던 중 지난해 8월5일 오전 10시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집에서 시어머니(69)의 밥에 극약을 섞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아머지는 며느리 D씨가 차려준 밥의 색깔이 파랗색으로 물들어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먹지 않아 화를 면했다.

D씨는 친구들과 만나거나 전화 통화하는 것 등에 시어머니가 평소 자주 간섭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유죄 평결과 함께 집행유예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등을 겪던 중 지난해 8월5일 오전 10시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집에서 시어머니(69)의 밥에 극약을 섞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아머지는 며느리 D씨가 차려준 밥의 색깔이 파랗색으로 물들어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먹지 않아 화를 면했다.

D씨는 친구들과 만나거나 전화 통화하는 것 등에 시어머니가 평소 자주 간섭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유죄 평결과 함께 집행유예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양형기준·구형보다 높은 선고 2題

교비 13억 횡령 직원 징역 6년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22일 수년간 학교법인 공금에서 거액을 빼내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했다가 기소된 광주 모 학교법인 직원 신모(36)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는 5억~50억 미만 횡령에 대한 양형기준인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보다 높은 것으로 이례적인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신씨가 횡령한 13억원은 학교의 운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직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소득세"라며 "피해 회복이 미미한데다 횡령 금액을 자신의 축재와 사치를 위해 탕진한 점에 비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횡령 범죄는

이득액이 50억원에 달해도 상한이 징역 5년에 불과해 사건별로 천차만별인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함에 있어 그 형량의 폭이 너무 협소하고 상한도 낮다고 판단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비록 이득액이 13억원이지만 양형기준보다 무거운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돼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07년 2월 광주 모 학교법인 명의로 예금된 4억 5000만원 가운데 8100여 만원을 빼내는 등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35차례에 걸쳐 학교법인과 이 법인이 운영하는 고등학교의 공금 13억원 가량을 횡령해 외제차 구입, 복권 구입, 유흥비 및 카드대금 결제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현석기자 chadol@

뇌물 영광원전 간부 징역 3년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간부들의 뇌물수수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법원이 "기술적으로 안정성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원전을) 운영하는 사람이 부패하면 국민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뇌물수수 원전 간부에게 검찰 구형보다 1년이 많은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전 관리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전본부 간부인 이모(45)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연일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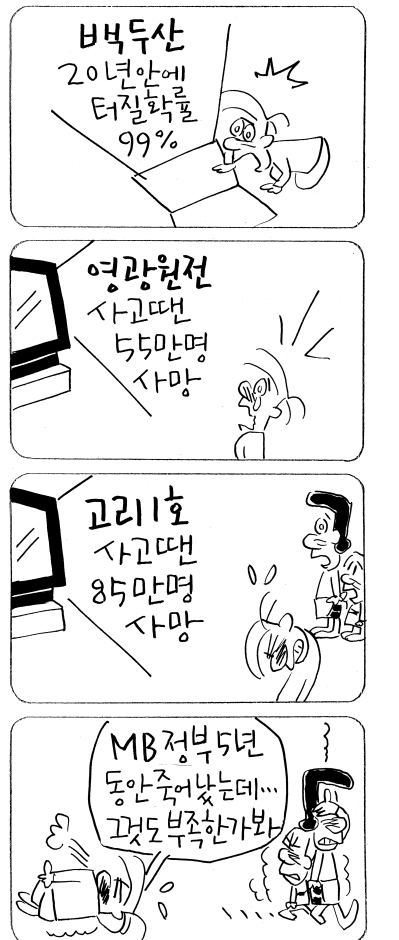
울산지법 특수부는 이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으로 이씨가 수수한 금품액수인 2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씨는 2011년 6월 원전 부품인 금속구조물 기계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의 조모 대표로부터 납품계약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에는 또 다른 원전 납품업체 대표인 배모씨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3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연일뉴스

나원침 (8572) 김장두



양식장서 양귀비 밀경작

여수해양경찰은 22일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바다 위 가두리 양식장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밀경작해온 박모(64)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불잡아 조사 중이다. 박씨는 여수시 남면 화태도 인근 가두리 양식장에 20여개의 화분을 설치, 이곳에 모두 52그루의 양귀비를 심어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남자아이에 3번 입맞춤 벌금 300만원

○법원이 술을 마신 채 8살 난 남자 아이의 볼을 감싸고 입술에 입을 맞춘 5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상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58)씨에 게 "홍씨가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것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

○홍씨는 지난 1월27일 밤 11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모 호프집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최모(8)군의 볼을 양손으로 감싸고 입술에 3차례 입맞춤을 했으며 이를 뒤늦게 안 최군 부모가 신고해 기소.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경찰청지정 운전면허 시험장

트레일러 대형 1,2종보통 2종소형(오토바이)

www.yjcdive.co.kr

문자면허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광주 최대의 규모 깨끗한 환경 친절한 강사진

학원에서 교육한 차량으로 주5회 장내·도로 자체시험 실시

- 새벽반, 야간반, 주말반 운영
- 2012년 7월 부터 수강료에 부가세 과세예정
- 교재무료 배부
- 11월부터 도로주행 시험강화로 수강료인상 예정
- 셔틀버스 운행

“공원같이 아늑한 학원전경”

위치: 신가동 사거리 분향교회 옆, 중앙아동병원 앞 ☎062-951-5100

트레일러 대형 1,2종보통 2종소형(오토바이)

www.yjcdive.co.kr

문자면허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광주 최대의 규모 깨끗한 환경 친절한 강사진

학원에서 교육한 차량으로 주5회 장내·도로 자체시험 실시

- 새벽반, 야간반, 주말반 운영
- 2012년 7월 부터 수강료에 부가세 과세예정
- 교재무료 배부
- 11월부터 도로주행 시험강화로 수강료인상 예정
- 셔틀버스 운행

“공원같이 아늑한 학원전경”

위치: 신가동 사거리 분향교회 옆, 중앙아동병원 앞 ☎062-951-5100